



JDI좌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의 비전 설계

일 시 : 2010년 3월 11일(목) 오전 10시
사 회 :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토 론 : 정대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지훈 세계유산연구소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김태윤 :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가 2012년에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환경 분야 올림픽이라 불리울 만큼 규모와 권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회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세계자연보전 총회 유치를 계기로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제시하며, 조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는 제약이 따르지만, 계획수립에 담겨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배경, 의미, 절차와 방법, 효과 등에 대하여 출연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계기로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도민들이 함께 동참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으로 세계환경수도를 설정하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연 : 우리가 논의할 9개 주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 의미를 달리할 수 있지만, 각자의 다양한 의미들을 종합하면 의미 파악에 포괄성이 있을 것입

니다. WCC 유치를 계기로 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계획하는 것이냐 그것은 개발과 보존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자연이라는 것이 자연 그 자체로도 생존권 이런 생태적 입장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연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의식주를 완전히 자연에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나누어 보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기능들이 생산기능, 조절기능, 공간기능, 정화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 환경수도 추진은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사후 대책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사회발전이념으로 설정해서 문제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훈 : 세계환경수도라는 얘기가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도민사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일단 행정에서 얘기가 나



왔는데 WCC 개최를 계기로 나왔다는 게 그럴 수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행정이 도대체 어떠한 고민 속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또 다른 세계에 알리는 어떤 수단으로 슬로건의 하나 정도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환경단체 내에서도 이 부분 만큼은 같이 이뤄질 수 있겠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자체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사람들의 상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기대가 큰 것만은 사실이고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모델이 제시되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하나로서도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로 그동안의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라든지,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는 것이라든지, 환경정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물론 행정에서 시작된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제주도사회에서 같이 풀어나가 볼만한 이슈와 목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WCC 개최도 있지만 이에 앞서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존지역, 랍사습지라는 작은 지역에서 이런 국제적인 보호지역이 지정된 그런 부분도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데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용 : 저도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이게 뭘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단순히 세계 환경수도만을 언급한 게 아니었고 같이 맞물려서 세계환경대학도 유치한다고 발표를 했었지요. 또 그 시기에 아시아 기후변화센터도 계획하고 있었지요. 제주도가 근래 들어서 국제적 수준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아직 정립이 안된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세계환경대학은 무엇인지, 세계환경수도는 뭔지. 또 어떻게 제주도가 접근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일의 순서에 있어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 사례의 생태도시라고 인정하는 도시를 볼 때, 애초에 생태도시로 가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타이틀로서 그 도시를 생태도시로서 세계인

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거꾸로 환경수도를 직접 언급하며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들이라도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다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세계환경수도 추진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업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의 추진의지는 WCC 총회 유치를 계기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보여주면서 우리 제주사회의 전략적인 미래 이념으로써 가져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양보 : 환경수도조성이란 말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주도에 과거에 환경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CC유치를 계기로 환경수도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행정이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의 여건상 필요한 것이냐, 시대흐름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는 2002년 세계생물권보존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06, 2008, 2009년 랍사르 사이트등록 등 세계에서 공식인정을 받는 곳으로 브랜드가치를 키웠습니다. 이제 2012년 세계환경올림픽이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립니다. 이때 세계에서 만여명의 환경전문가들이 제주를 방문합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가 진정한 세계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본틀, 도민환경 행동의식, 국제환경 협력 등에서 바뀌어나가는 비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 것뿐이고요, 앞으로 진정한 환경수도의 모습은 도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윤 :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요약하거나 종합하지 않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기대하는 바도 있고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이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렇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비전제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연 : 현재 환경수도라고 하면 세계, 환경, 수도라는 동시에 세 개가 포괄되는 개념으로 정립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요. 단순히 생각을 하면 세계라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화 속에서 환경측면에서 제주도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 할 것인가. 남들하고는 차별화된 프라이부르크는 이러하니까 이런 걸 차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유성과 특수성 이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자연환경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인공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환경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수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결국은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의 의미는 어떠한 요소들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창원은 자전거 타기다 이런 거면 그것이 어떠한 요소들로 커버할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커버하는 영역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정립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는 아주 애매한 말 같습니다. 원래 수도는 사실상 정치적 의미거든요. 한 나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그러면 세계환경수도 제주라면 세계환경정부가 제주도 들어서 있어야 수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 수도를 정치적 의미의 차원보다는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특수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구는 교육도시이고, 부산은 해양수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세계적 환경도시, 세계적 환경생태도시라든가 이런 의미라면 몰라도 세계환경수도는 아주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순천의 경우 완전히 도시구조를 생태적으로 건강하도록 재편한다고 초점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루는 게 공원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생태도시의 여러 개념 가운데서 공원에 포커스를 두고 환경수도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창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공업단지 아닙니까. 공업단지에서 탈피해서 생태도시를 지향하자. 그러면서 수도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창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능에서 주 기능을 전환시켜보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하겠다, 교통은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도시공간은 어떤 식으로 에코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수도라는 의미를 사용하더라도 따지고 보니까 생태도시로 전환을 하는데 생태도시의 여러 의미 가운데서 어느 요소들을 강조하는가 이것은 순천하고 창원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제주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을 벗어나서 정말 수도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떤 점들에 포커스를 두고 따져야 되는지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훈 : 환경수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Eco capital 이나 Environment capital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단어는 Sustainable city나 Eco city, Green city는 나오는데 capital 이라고 쓰는 사실은 개념이 없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공인된 환경수도라는 그것도 세계가 공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라이브루크나 기타큐슈는 사실은 세계적인 환경수도라는 것이지 세계환경수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수도라는 개념조차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고요. 제주도가 또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 기타큐슈처럼 일본의 환경수도가 확대되면서 소문나니까 자기도 세계적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조차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환경수도를 하겠다, 그것도 더 거창하게 세계환경수도가 되겠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환경수도를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게 환경수도일까 하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환경으로 둔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모델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수도모델은 제가 스크린 해본 바에 의하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섬이고 대부분의 세계적인 환경도시라고 얘기되는 지역들이 치명적인 환경위험이나 프라이브루크의 원자력이나 기타큐슈 같은 공업지역의 오염상황이나 환경공해라든지 이런 경험 속에서 비롯된 지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관광산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더 심한지역입니다. 이

런 측면에서 환경수도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영웅 : 저는 환경수도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행정에서도 이런 유행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자치단체마다 얘기했던 게 생태도시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하남시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시도 생태도시 하겠다고 했었고 거의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생태도시 관련 부서도 만들어지고 추진전략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잠잠해지더니 최근에는 환경수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태도시, 환경수도 특히나 환경수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개념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정하길 나름이라고 봐요. 사실은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환경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고 또 그렇게 사회체제로 가겠다는 상징적인 개념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생태도시 개념을 갖고 자치단체마다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새로운 개념, 좀 신선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수도라는 개념을 또 꺼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념문제만을 가지고 'A는 뭐고 B는 뭐다.' 라는 식의 개념정립 이전에 지난 과거 성과위주의 개념이나 비전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실천 못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이 환경수도를 어떻게 하면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환경수도의 정책접근을 단순하게 자연환경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실무위원회 워크숍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연환경 외에 사회체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해야만 공론

화 되고 있는 환경수도의 개념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상황을 본다면 앞서 말한 관광이라든지 농업분야에 특히 이런 환경수도의 추진전략들이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조언을 들고 싶습니다.

김양보 : 환경수도라는 개념은 자타가 공인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세계환경모델도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전체가 순환성, 지속성을 담보한 생태도시가 되어야 하고, 도민들의 친환경행동체계가 일상화되어 나타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친환경성을 담보로 하는 경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오고싶어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환경도시를 의미합니다.

김태윤 : 세계환경수도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관련된 내부지향형과 제주의 이미지를 외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외부지향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유인하는 내부지향형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도민의 삶의 질, 우리지역의 환경 질을 현재보다 더 높ی겠다는 의지라든지 현재뿐만 아니라 후세들의 이용측면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외부 지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교류하고 학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세계환경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달성하게 된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미리 예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제시되었을 때 보다 구

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제주환경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환경수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대연 : 비전이 뭔지가 정립되어 있어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확정이 되고, 그 실천내용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적합한 토론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전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 주제를 두고 보면 비전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비전이 제주사회에 실시되면 어떤 변화는 오겠지요. 현재 도민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가 오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제주사회 시스템이 어떠한 것이라든가를 바탕으로 해서 비전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요.

김태윤 : 사회자의 바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연 : 결국 비전은 우리가 조금 전 토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환경수도의 의미와 함의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기초하여 비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 비전의 내용은 단순히 생태도시라는 의미를 초월해서 수도라는 의미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유성과 특수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유성과 특수성은 결국 우리가 내부에서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살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설정된 비전을 정말 세계적 수준이 되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화의 관계적 맥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지훈 : 전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섬, 제주'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동안 얘기해왔던 생명 평화의 섬이라고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미래상일 수도 있는데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유럽에 환경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지역들을 보면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이나 오슬로같은 이런 대부분 북유럽 사회복지 선진 지역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도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큼니다. 환경적으로 좋으면 삶의 질도 좋은 도시 제주도가 될 것이며, 소문내지 않아도 세계 사람들이 찾아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는 환경도 좋고 살기도 좋다는 것이냐, 이런 지역을 만드는 게 제주도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영웅 : 여러분들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삶의 질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말하는데 한편에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은 경제성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의 정책을 보면 주민들의 소득을 삶의 질과 결부시킨 것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지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제주에 오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제주의 자연을 볼 수 있고 제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지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행복한 섬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가도록 하는 사업계획들을 만들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를 유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소비적인 측면이 큰 것이고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수도의 개념이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도외시 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적인 만족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고 봅니다. 그건 곧 삶의 질에 있어서 편리성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 지속가능한 측면을 먼저 고려를 하는 거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연계에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것은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생태계 내에서 생존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약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 사회체계에 있어서도 자연계와 비교했을 때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있어 보편적인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환경하고 무슨 관계냐고 할 수 있지만 사회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제주에서는 과소비가 지양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주사회의 순환경제를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김양보 : 제가 두 분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던 점을 종합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체제는 물질적인 풍요성, 편리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는가 그 방향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지금 여기서 환경수도라는 것의 의미는 환경수도, 그리고 이런 사회체제와 조금 전에 이국장님이 이야기한 삶의 질, 인간의 삶의 질, 이 세 개가 동시에 고려가 되면서 얘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시스템과 환경수도, 삶의 질 향상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시스템 자체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그러면 사회시스템 자체가 물질적인 풍요성 생활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체제화가 될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도 동시에 포함된 차원에서 재구조화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질 문제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아주 넓은 범위의 삶의 질·사회적 체제

가 풍요성, 편리성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실시될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비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환경수도의 비전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태운 :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네 분 모두 같은 비전을 얘기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훈 : 이른 감이 있는데 환경수도를 성공시키려면 외국의 사례, 주민의 참여와 환경시민단체의 거버넌스가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제주사회에서의 도민이나 도민참여는 동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NPO라든지 NGO, 환경 NGO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말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기 위해선 행정의 어떤 자세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속에는 크게 이른바 세계적인 환경도시 그 수준에 버금갈 수 있는 정도에 기본적인 보편적인 어떤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야 할 텐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후변화시범도시라든지 환경교육시범 도시라든지 국내에서만은 선도적으로 치고나간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엮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자원, 생태적인 자원, 세계자연유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보전하면서 생태환경자원

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 목표,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다 한다고 알아줄 것 같진 않고요. 그 중에서 예전에 어떤 역사적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라는 것, 그래서 평화의 섬과 연관된다고 하는 것 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묶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야 이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웅 :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환경수도의 취지가 제주도정의 철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사가 바뀌더라도 제주도정이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될 이념이면서 철학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 분야에 있어서 환경수도가 중심적인 추진 전략,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겠죠. 지금의 제주도정의 시스템 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세계환경수도 추진조례를 만들어서 환경수도의 이념이라든지 환경수도에 대한 철학을 명시하고 한길로 쪽 갈 수 있는 현장을 갖고 가는 거죠.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하나의 계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정도도 약하다고 보고요, 제주도가 도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선언적인 발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십년까지는 제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전체에너지의 30% 이상은 마련하겠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화학농법을 50%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선언하면서

전략적인 추진계획으로 가는 것이 도민들의 구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연 : 같은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것을 제도적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가 일차적 문제인데, 현재는 도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버넌스체제가 도입되면 도는 주체자 입장보다는 주관자가 되겠지요. 도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그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거버넌스체제가 도입되면 이해관계 당사자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므로 결정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효율성, 능률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자 합의체는 정책결정에서 사실상 갈등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유성을 찾을 것인가가 핵심적으로 되어야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야말로 제도적으로는 세계가 인정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것은 완전히 남들과는 구별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일종의 선구자 위치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태윤 :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제시할 때 제주의 강점을 활용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서 제주가 지니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 강점이야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요.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봤을 때 협소하지만 그에 비해서 생물적인 다양성, 종 다양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백두산까지 포함한 한반도 식물종의 50%정도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등 갖가지 세계적인 보전지역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위치도 동남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사회적인 자립성이 많이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구조에 있어서 도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론이 너무 경제 분야의 소비지향적인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주도정의 정책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이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도민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겠죠. 그 래야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토목건설 중심의 문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소비지향적인 사회구조도 개선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환경수도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훈 : 사실은 환경수도를 조성하는데 강점이 나 단점은 사실은 제주도라는 특성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어떤 점에선 강점일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선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섬이라는 고립성도 있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세계환경수도를 만들어 보자고 배경이 됐던 WCC유치라든지 세계

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생태자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반대로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절박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약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환경수도의 상을 잘 아직은 몰라서 도민들은 지금 기대만 하고 있는데, 어떤 부담이라든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걱정되는 바가 없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관광사업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서 소비지향적이고, 어떤 개발우선주의적인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측면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섬이라는 고립성 뭐 이런 부분들도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 고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예를 들면 아까 농약 같은 것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부두에서 살충제를 막아버리면 되니까요. 또 농업부에서의 정말 친환경농업으로 우리가 정말 나가보았을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선 다른 지역보다는 쉽게 추진할 수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대연 : 저는 이 주제를 봤을 때 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내부,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의 여건들 측면에서 강점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내부가 갖고 있는 단점,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타지자체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국제관계 속에서 제주가 처해있는 위치 이런 측면을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점의 경우에는 내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이 갖고 있는 고립성, 특수

성을 살리면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조건이 성립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형성된 환경이미지 그 다음에는 환경파괴의 근원적인 원인인 2차산업 비중이 낮으니까 타 지역보다 창원처럼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환경운동도 강점이 될 수 있겠지요. 저는 제주도 환경운동의 역할을 두 측면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에게는 교육자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지요. 단점의 경우는 내부적인 측면에서 해면 우리가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재정 측면에서 과연 설정해놓은 사업들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아까 이영웅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요구하였던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때 속도도 느리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 갈등이 결국은 사전에 제도적으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결정된 정책이 나중에 공포되니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결국 이것은 도청서 정보공개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도 환경수도를 추진해 나가는데 내부의 단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민들의 낮은 수준의 친환경 의식, 낮은 수준의 친환경행동도 단점입니다. 도민들이 실천을 안 하게 되면 환경수도 실현이 어렵겠지요. 예를 들어서 기업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지만 도민들의 일상생활은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세계환경사회화회가 개발한 척도를 가지고 제주도와 호주 브리스베인을 대상으로 환경주의 가치체계, 소비주의 가치체계,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비교연구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비해 제도도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들이면 낮은 수준의 정보 공개, 거버넌스체제의 미 도입, 도민들의 낮은 수준의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단점들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높은 재정 의존도로 인한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 자율성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정책을 중앙정부로부터 별도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중앙정부가 현재 통제자에서 후견인으로 좀 물러나주게 되면 환경수도 조성에서 실천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타지자체와의 관계를 보면 타지자체와는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상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후변화대응시범도를 한다, 환경수도를 한다고 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타지자체들에 비해 도민들의 풍요성 등이 낮아질 수 있지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은 타지자체에 비해 풍요성이 낮아질 수도 있지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타지자체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공유, 공동대응 전략 구축,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이 약합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역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정보 교류, 인적 교류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점들이 현재 제도도가 취약합니다.

이지훈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단점으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아까 동전의 양면인데요 이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특별자치도 법률 속에 많은 부분을 위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고 사실 특별자치도가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국제자유도시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법이 내용

이 개발 위주의 법입니다. 특별자치도법을 환경수도라는 보존위주의 법으로 완전히, 전면적으로 재수정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 환경수도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대연 : 평화의 섬이다. 국제자유의 도시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다 모두 표면적으로 보면 별도지만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수도가 하나 또 들어서게 되면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환경수도를 제일 상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하위영역들로 구축을 한다든지 상호 수평관계로 구축을 한다든지 수평관계로 구축할 때는 서로 상충된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김태윤 : 정대연 교수님께서 재정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세계환경수도라는 용어속에 우리들만의 만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제도와의 관계에서 재정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가 이루어 졌을 때 다른 지역에 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환경수도를 누가 추진할 것인가를 다루는 추진 주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각자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지어 말씀을 나눈다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연 : 참여 문제라고 할 때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겠지요. 그래서 기존 정책결정 체계는

한마디로 폐쇄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청회가 갖는 의미는 뭘니까? 행정기관이 결정한 정책을 사후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한다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수정보완을 해서 의견 반영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대개의 경우 공청회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한 집단에서는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갈등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책에 대해서 정책 집행의 능률성,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특징화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책결정 과정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경우에 이것은 갈등을 사전에 흡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 효율성, 능률성이 상당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 이 이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파트는 경제파트대로 문화관광은 문화관광파트대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지훈 : 환경수도를 이루기 위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자발적 참여를 조직화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왔느냐 하면 캠페인성 개인양심에 호소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원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죠. 당근 아니면 채찍인데 쉽게 이야기 하면 차를 갖고 오면 정말 불편하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건 채찍이죠. 그래서 도민 스스로 차 갖고 다니지 말아야겠구나, 주차비도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구나 느끼게 하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느끼게 하거나 이에 대해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주어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은 이상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30cm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웅 :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학습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참여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동원문화도 익숙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행정에서 주축하는 공청회에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자리 잡아 있어서 내가 진짜로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과연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오신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문화가 자발성이 좀 미흡하고 퇴색되어 있다는 건 걱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저희도 환경교육을 해 보면 성인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안 먹히더라고요. 교육시간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바로 강의실 나가서는 자판기 커피 뽑아먹고, 1회용 종이컵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시민교육의 효과가 많은 아이들부터 아이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쪽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봐요.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꾸준히 시키면 나중에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또 도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보상이나 혜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육지부 어느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가게

를 가면 그 가게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편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버스안타고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가 불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느냐고 하면 불편이 되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과 동시에 불편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받아드릴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들을 구상한다면 어렵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수도의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확신만 준다면 절대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 했던 동원문화가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시민운동과 행정의 노력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양보 :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책 결정이란 부분을 보면, 행정에서 정책결정과 관련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행정업무와 구분해 볼 때, 행정은 법집행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들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환경수도를 추진 해야되는가 아닌 가라는 부분에서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일수록 도민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그런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환경수도와 관련해서도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수도추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의지와 지속적인 추진력에 따라 좌우되는 사항입니다.

정책결정이 현실화하려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행정조직 그리고 예산, 제대로 하려면 법적인 조항 세 가지가 틀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결정이 행정의 틀 안에서 추진되려면 이 세 가지 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환경수도를 조성해 나가려면 왜 행정만 하는가, 왜 앞서나가는가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주가 나갈 방향이 바른길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상에서 어떻게 힘을 합쳐 비전을 달성해 내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같이 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업발굴도 어떤 걸 해야 될거냐 하는 것이 나오고, 나아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는 말은 결국엔 공감을 해서 같이 가겠다는 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역 인센티브를 주는 페널티는 제도나 법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직기반과 공감대 형성은 서로 같이 해결되어야만 되는 사항들입니다. 도민공감대가 우선이고, 조직기반 구축은 나중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환경행동을 하는 사업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은행, 마켓 등에서 친환경행동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공동의 환경실천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30% 할인 혜택을 준다. 그걸 참여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력에 또 버스를 탈 때 30% 할인 뭐 할 때 뭐해준다. 그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건데 하지만 투자를 감수하면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수도조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안에서는 환경이나 사회나 경제는 연결되기 때문에 제주발전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는 관광산업

이 8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이 관광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를 세계에 알려 제주에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해외 협력이나 국제 협력 행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부적인 어떤 만족이나 아까처럼 환경행동 마일리지로 제주의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지만 경제하고 연결될 때는 주산업이 관광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영향요인을 어떻게 커버해서 제주관광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환경행동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외환경협력, 이를 통한 생태관광이 발전을 통해 제주가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곧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사회, 국제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도는 도시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 체계를 만들 것이며, 그와 함께 도민들의 관심을 협의회를 조직해 나아가고, 두 번째는 도민이 환경행동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대학, 국제환경회의 등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주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김태윤 : 다음은 세계환경수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인지,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훈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수도가 단순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경제

적 지속 가능성까지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면 제주도의 중요한 경제구조가 농업과 관광사업인데 이것을 환경수도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산업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산업이고 이런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어떤 모범적인 세계적인 뭐 이거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에너지를 굉장히 줄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제주도의 모든 호텔에서 만큼은 그린카드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측에서도 크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농업문제인데 친환경 급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농업이나 로컬 푸드나 유기농 사용이 환경수도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살충제나 농약을 이런 것들을 아예 부두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시범도로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이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어른들은 정말 실천하기 힘들어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과정에 제주도만큼은 환경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영웅 : 저도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화학농법을 쓰는 농가가 대부분인 이유 중에 물론 농민들의 의지 부족으로 탓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오히려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법률상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와 관련한 것들을 제조·판매하는 데 법적인 제약요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화학비료 회사의 로비도 있겠고, 법적인 제도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주지역에 장기적으로 유기농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만 실현되어도 제주도가 환경수도내지는 환경의 어떤 별칭이 붙은 국제적인 수준의 제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텃밭 조금씩 키울 수 있잖아요. 포트하나 마련해 일상생활에서 도시민들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실천 운동으로써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역화폐운동을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지역화폐운동을 한다고 하던데, 기존에는 대전 한밭레츠, 원주 등 몇 군데에서만 지역화폐운동이 그것도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오히려 제주도가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환경수도라는 것이 자연생태계의 원리 그러니까 자립성, 순환성 등의 요소들을 우리 사회체제에 적용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화폐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보 : 이영웅 국장님 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를 위해서 파급효과가 제일 큰 게 뭐냐인가를 판단하는 점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각 단계별로 예산이나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있는가?를 우선 고려해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을 판정하는 일도 현실감안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환경 행동 마일리지에 지역화폐를 연결시키면 환경화폐를 발급해서 예를 들면 50억원에 해당되는 화폐를 발급하여 친환경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교환하고, 그게 쌓여서 예를 들면 그게 10원짜리가 됐든 100원 짜리가 됐든 1000원짜리가 됐든 애들 수준 이든 성인수준이든지 맞게끔 함으로써 그게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유기농을 사

든지 뭔가 친환경 행위를 하게끔 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환경수도조성을 위해서 충분히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도민들의 세금을 도로 포장하는데 쓰는 돈이나 아니면 환경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50억원이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미래 지향적일 때는 그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감대를 형성시켜가지고 도민들이 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0억원의 환경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의 바람은 환경화폐를 발행하는데 참여할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하고 안 된 사람은 페널티로 과태료로 부과해서 그걸 다시 환경화폐로 주는 식으로 순환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에코호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관광객들의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바뀌어야 개선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행사, 어디 가는 부분들, 호텔, 비행기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 다함께 참여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될 것 같고 아까 비료같은 화학비료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유기농을 할 수 있지만 유통이 문제라 유통이라는 것은 판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없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생태관광과도 이런 맥락과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서 농촌 민박을 이용해 숙박하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때론, 이것을 택배를 이용해서 구매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가 유지되어야 농촌도 살고, 자연도 보전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봅니다.

김태윤 :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면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연 : 저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한두 가지로 핵심적인 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그런가하면은 정책이라든지 시민단체활동,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경영 이런 걸 추구해도 결국에 시민들이 실천을 안 하면 환경수도하고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주도 안에서 환경교육이 여러 운영기관들도 아주 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도 다양하게 포커스를 두는 게 달라서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 세계환경수도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통합 내지는 단일화시켜 운영 주체, 교육내용이 도민을 대상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환경대학원 이야기가 우리 이영웅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설립을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국제네트워크 분야도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세계적 수준의 환경대학원 설립 기본구상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성이 되기로 했는데 완성을 하면 환경수도 위원회로 제출이 되어 할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환경수도 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세계적 수준의 환경대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UN하고도 매치가 되어 된다. UN기구하고 매치를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건가 그러면 내국인들도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들어 오려면 우리 외국대학에 가려면 토폴 봐야 되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틀을 아주 완전 틀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까만 7월말까지 완성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웅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전에 했던 계획들처럼 하다마는 그런 유아무야되는 계획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 비전으로써 주민들도 참여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바꿀 수 있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

책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이게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식상해져 버렸는데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보도 충분히 공개해주고 주민들, 전문가, 환경시민단체들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세계환경수도 추진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합의 할 수 있는 제주도의 미래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지훈 : 제대로 추진되려면 제도적으로도 보완될 부분도 있고 그런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인 특별법을 개발법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특별법인데 개발법하고 합쳐지면서 개발 위주의 법이 됐는데, 환경수도와 관련된 법률을 좀 개정시키는 그래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일단 도 행정자체가 환경수도추진단의 경우 사실은 말이 환경수도추진단이지 청정환경국 내에 있는데, 도지사직속으로 해야 이게 추진될 내용입니다. 최소한 정책기획관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제주도의 전체적인 행정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덧붙이자면 도민들의 참여라는 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합니다. 어렵게 하면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양보 : 이게 제주도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다른 행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정책적 의지, 조직, 예산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데 환경수도는 지금 첫발을 뗀 것입니다.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들은 지금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사님이 본부장이 되고 각 국의 국장님들이 참여하여 도 전체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이 확실히 조직내부에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많이 공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리더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좌담회가 자주 열리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대연 : 말씀 드리다가 말았는데 현재 세계평화의 섬이다, 국제자유의 도시다, 기후변화시범도다, 환경교육시범도다 큰 일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환경수도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는 당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를 상위에 놓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하위영역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차원으로 할 것인지, 동일차원으로 했을 경우에 각자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니까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 통합을 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연속성입니다. 혹시 지사가 바뀌면 중도 포기되어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환경수도는 2019년까지 아주 장기 전략이니까요. 정책 연속성이 보장이 될 것인가, 지금 중앙정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윤 : 세계환경수도와 관련하여 매우 유익한 말씀을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계환경수도 비전은 제주의 강점을 발휘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비전 실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이 더욱 값진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더없이 중요함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